

투데이

광주 대형마트 지역 생산품 '홀대'

백화점·기업형 슈퍼 등 22곳 조사 지역 농산물·공산품 판매 30% 그쳐

광주지역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공산품 중 광주·전남 지역 산품 비율이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 시민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 6·7·9월 세 차례 걸쳐 광주지역 백화점·대형 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총 22개 판매장에서 20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생산지역을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생산품 비율은 평균 36.7%에 그쳤다.

기타 지역 생산품이 52.4%로 점유율이 높았으며, 생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경우도 10.4%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 외국계 자본이 된 D마트의 경우 지역 생산품 비율이 17.8%로, 다른 조사대상과 비교해볼 때 지역 생산품 비중이 특히 낮았다.

품목별로는 소고기(등심)와 돼지고기(삼겹살)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생산 제품이 6월 36.3%에서 7월 25%, 9월 22.5%로 점차 낮아졌으며,

조사대상 중 50% 이상이 다른 지역 산품으로 나타났다. 보리·현미·콩 등 곡물의 경우도 지역 생산이 평균 20% 이내로 낮았으며, 특히 현미가 5%로 가장 낮았다.

채소류는 광주·전남지역 생산 제품이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채소류 중 배추와 무·대파·깻잎 등은 다른 지역 생산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채소 중 양파는 90% 이상이, 방울토마토는 70% 이상이 지역 생산이었다.

하지만, 포도와 참외·복숭아·수박 등은 95%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소비생활센터 관계자

는 "조사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농산물의 경우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적인 요소가 발생해 유통업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물량 확보를 위해 기타 지역 산품 공급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라며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이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곡물류와 채소류를 외면하고 상당 부분 다른 지역 생산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생활소비자센터와 광주시의회 전주연(민노·비례) 의원은 26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희호 이사장 광주 신애원 방문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이 26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신애원을 방문,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 추모문화제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5박6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남·경북에 7033억 전남·전북은 1606억

내년 도로 건설 예산 지역 편중 심각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도로 건설 관련 예산 편성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역간 도로 건설 예산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경남과 경북에 7033억원이 편성된데 반해 전남·전북은 1606억 원, 충남·충북은 1376억원, 강원도는 1761원으로 집계됐다.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모두 합쳐도 경남과 경북보다 2290억원이 적다.

국토부 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조3889억원의 절반이 넘는 50.6%가 영남권에 배정된 셈이다.

일반 국도 건설사업비 내년 예산의 경우 전남·전북이 2237억원으로, 경

남·경북 2175억원에 비해 62억원이 많게 편성됐지만, 총사업비 예산은 경남·경북이 3조147억원으로, 전남·전북 2조5003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강기정 의원은 "내년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건설사업 예산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특히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사업은 경상도의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과 비교해 혼잡도가 비슷함에도 남해고속도로는 반영했지만 호남고속도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도로예산은 일반국도 건설사업이 약 8005억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약 1조3889억원이 편성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국문·영문 소식지 연 4회 발간

조직위, 3500부씩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내년부터 국문과 영문소식지를 연 4회 발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위는 내년부터 조직위의 활동과 U대회 준비 내용 등을 담은 24쪽 분량의 국문소식지 2500부와 영문소식지 1000부 등 3500부씩을 1년에 4차례 발간하기로 했다. 국문소식지는 체육계와 대학교, 조직위원회에 발송하고, 영문소식지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국제스포츠기자연맹(AIPS), 각국 대학스포츠연맹

등에 배포해 국내외 홍보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지난해 8쪽 분량의 국문 소식지를 2차례 발간했고, 올해는 최근 24쪽짜리 국문소식지 2500부와 영문 소식지 1000부를 한차례 발간했다.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소식지를 통해 광주뿐만 아니라 선진, 카잔 등 유니버시아드 개최도시들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 준비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대회 준비 과정을 많은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참여 유니버시아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착수

관리공단, 용역결과 내년 4월 발표 ... 구역 확대 방안도 검토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18일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사실상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1월 2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용역업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무등산의 자연생태계와 지형·지질, 자연환경 및 경관, 문화자원 등을 조사 분석하게 된다. 또,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과 탐방객 이용실

태, 경제적 가치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012년 4월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부처 간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께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히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광주시가 신청한 무등산 국립공원 구역 30.23km를 다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용역발주를 위한 계획서에서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총 20곳으로 ▲지리산 471km ▲설악산 398km ▲오대산 303km ▲내장산 81km ▲북한산 79km ▲월출산 56km 등이 모두 무등산 국립공원 신청 면적보다 넓다.

광주시는 국립공원 지정의 장점으로 ▲국제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 ▲국내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공원관리비 국비투자로 각종 공원사업의 추진 및 시비 절감 ▲전문적 공원관리로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가속화 등을 꼽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무등산에 대한 현지 실사를 했다"며 "현재 무등산 도립공원 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면적이 있어 도립공원에서 제외된 곳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완도~청산도 항로 46만8000명 몰렸다

섬 단체 관광객 급증 44% 늘어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국 1130만명

완도~청산도 항로 이용객이 올해 들어 44%가 늘어나는 등 섬 지역 단체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올해 3분기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국적으로 11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적은 111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작년 말 거가대교 개통으로 올해 상반기에 6개 항로가 영업을 중단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1% 증가한 것이다.

연안여객 항로 가운데에서는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는 통영~매물도 항로에 작년보다 70% 증가한 26만9000명, 완도~청산도 항로에

44% 늘어난 46만8000명이 몰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목호~울릉도 항로는 17% 증가한 20만8000명, 여수~거문도 항로는 16% 늘어난 15만8000명을 실어날랐다.

이밖에 제주지역은 15만급 국내 최대 규모의 카페리여객선 스타크루즈호의 취항으로 목포~제주 항로 이용객이 56만3000명으로 11%

늘어난 반면 녹동(고흥)~제주항로(18만9000명→16만2000명)와 인천~제주항로(8만8000명→7만8000명) 등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4분기에 계절적 특성으로 여행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연안여객 증가 추세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통일연구원, 내일 광주서 통일대강연회

통일연구원은 28일 오후 2시 광주 KT회관에서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제4회 통일광장 : 광주·전남 지역 통일대강연회'를 개최한다.

통일담론을 확산시킨다는 취지에

서 마련되는 행사로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등이 통일비전과 통일대비 방법, 북한 후계구도와 권력갈등, 북한 인권실태 등에 대해 강연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本 社 人 事

▲박정훈 독자서비스국 판매부 차장
(10월 27일자)

투자자 1억 이상

- 경제 낙찰 받은 물건에 투자하실 분
- 20년 경매 경력 / 특수물건만 투자
- 동기 및 저당권 설정으로 법적 보장
- 1억원 투자시 년 2천만원 수익!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형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 상 준**

전화 **227~7575**
이 이 씨 ~ 치료 치료

대한 한의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5-중-9092호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전남 · 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 출장뷔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 교회결혼식뷔페
- 야외결혼식뷔페
- 칠순/팔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 종친회
- 기업체 각종행사

예의 파티외식산업
본사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 시금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 KB시세 -80%+0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 -8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리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담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한민국 실거래액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역 선순위 - 연 5%~7.5%(은행금용)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